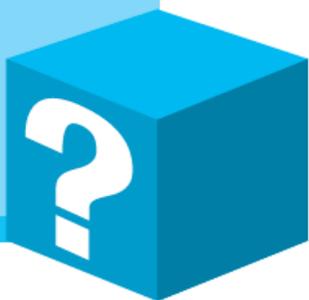




미래엔 자유학기제 진로 탐색 영상

# 꿈나침반 활용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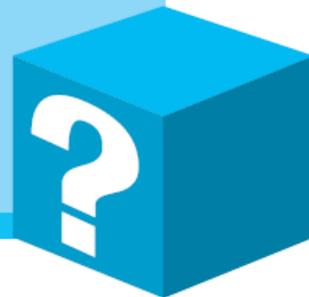


MiraeN 교과서

동아일보 교육법인

# 자연 계열

- 23. 종이를 치료해 역사를 되살리는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
- 24. 도시 농부들의 멘토 '도시농업활동가'
- 25. 식물을 그림으로 기록하는 '식물세밀화가'
- 26. 수중생물 전문가 '아쿠아리스트'
- 27. 식생활 전문가 '영양사'
- 28. 향기를 디자인 하는 '조향사'



# 종이를 치료해 역사를 되살리는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 고연석

한국전쟁시기였던 1950년 9월 15일. 국제연합(UN)군이 인천에 상륙해 전쟁의 전세를 뒤바꾼 '인천상륙작전'이 거행됐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비밀작전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경북 장사 지역(영덕군 장사리)에 유격대를 상륙시켜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라!”(정일권 당시 참모총장)

정일권 참모총장은 북한군이 인천상륙을 예측하지 못하도록 교란시키기 위해 비밀리에 장사상륙작전을 지시했습니다. 이 작전에 투입된 대부분의 병사는 겨우 2주 정도의 군사훈련을 받은 '어린 학도병'이었지요. 잊혀졌던 이 작전은 '단 한 장'의 작전 명령서 복원을 통해 공식 확인됐습니다.

이 기록물을 복원한 고연석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은 “기록물 복원은 역사 속에 잊혀진 희생자들을 기억하게 도와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역사 속 희생자들에게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준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은 무슨 일을 하는 직업일까요?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이 되기 위해선 어떠한 자질을 갖춰야 할까요?

## ▼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이 하는 일은?

공공기록물을 보존하고 복원!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이란?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에서 나온 공공기록물들의 보존 및 복원을 책임지는 일을 하는 사람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은 훼손된 국가 기록물을 복원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즉, 훼손된 종이 기록물을 치료해 보존이 잘 되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들은 왜 공공기록물들을 복원하는 것일까요?

“기록물 복원은 역사에 숨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고연석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

과거의 기록물들은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과거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느끼고, 역사적 교훈을 얻기도 하지요.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와 3·1 선언문을 복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과거 일본이 우리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어떠한 일을 했는지, 일제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민족지사들이 어떤 의지를 가졌는지 해석하는데 도움을 주지요. 뿐만 아니라 기록물 복원 작업은 역사적 인물의 활동을 입증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애국지사인 권기옥 여사의 독립운동과 참전기록물, 일본비행학교 졸업증서를 복원해 우리나라 첫 여류비행사라는 사실을 알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기록물은 어떤 과정을 통해 복원될까요? 아래의 표를 통해 살펴봅시다.

※ 공공기록물 복원과정

- ①기록할 복원 자료 선별
- ②표면에 묻은 곰팡이나 해충 분비물 제거
- ③찢어지거나 금이 간 부분에 한지를 덧대 보강

방대한 양의 국가 기록물 중 어떤 자료를 복원할지 선별하는 과정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기록물이 선정되면 기록물의 표면에 묻은 곰팡이나 해충 분비물 등을 조심스럽게 제거하는 과정이 두 번째 단계이지요. 기록물이 오래된 경우 손이 스치는 것만으로도 종이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찢어진 부분이나 금이 간 부분에 한지를 덧대어 문서를 보강하는 것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쉽지 않은 작업이지요.

▼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에게 필요한 자질은?

종이의 특성과 복원처리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력!

- 훼손된 종이를 복원·보존하는 일
  - ▶종이 특성에 대한 이해력과 복원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지식 필수!
- 복원 작업은 처리과정이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
  - ▶어려운 복원과정을 수행할 성실성
- 유일한 원본을 다루는 직업
  - ▶책임감을 갖춰야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이 되기 위해선 어떠한 자질을 갖춰야 할까요? 크게 3가지의 자질이 필요합니다. 첫째, 종이 특성에 대한 이해력입니다. 훼손된 종이를 복원하는 업무를 진행하는 만큼 다양한 종이의 재질과 특성에 대한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복원·보존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지식입니다. 손상된 종이를 복원하는 전문지식 없이 업무수행에 나선다면 어려움이 뒤따르겠죠? 세 번째는 성실성과 책임감입니다. 종이를 복원·보존하는 작업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 작업과정이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복원과정을 잘 실행하기 위한 성실성이 필요하며, 유일한 원본을 제대로 복원하기 위해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이 되려면?

기록물 복원 관련학과 전공 후 국가기록원 입사!

대학·대학원에서 기록물 복원 관련학과 전공 →국가기록원 공개채용 합격

국가기록원이 되기 위해선 기록물 복원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학 및 대학원에서 △미술품보존학 △문화재보존학 △보존과학 △문화재학 △문화예술보존학과 같은 기록물복원 관련학과를 필수로 전공해야 합니다. 학교를 졸업한 뒤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로 진행되는 국가기록원 공개 채용에 지원해 합격하면 학예연구사로서 국가기록물 복원 작업에 투입될 수 있지요. 일반적으로 학예연구사로 입사해 3~5년의 경력을 쌓으면 학예연구관으로 승진할 수 있습니다.

- ▼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 이것만은 꼭 알고 하라!**  
뛰어난 복원 기술만 갖추면 된다?  
NO! 기록물의 역사적 가치·내용 파악 능력도 중요!

단순 작업? NO! 다양한 종지와 미세한 훼손을 접합하는 업무  
관찰력과 섬세함 갖춰야!

완벽한 복원을 추구해야 하는 직업  
▶ 철저한 조사와 깊이 있는 역사공부 필수!

다양한 종류의 종이를 다루는 직업·육안으로 구별할 수 없는  
미세한 손상을 복원하는 일  
▶ 집중력·관찰력·섬세함 갖춰야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이 되기 위해선 뛰어난 복원 기술만 갖추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원 기록물의 역사적 가치와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은 단순히 훼손된 종이만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에 기록된 내용도 함께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기록물이 만들어진 시기와 목적, 기록물의 중요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지요. 기록물을 완벽하게 복원하기 위해선 기록물을 철저히 조사하는 태도와 꾸준히 역사를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록물을 복원하는 일은 똑같은 절차를 반복하는 단순 작업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경우에 따라 하나의 기록물에 최소 6개에서 7개의 서로 다른 종이가 섞여 있기도 합니다. 재질이 다른 종이가 섞

여있는 만큼 복원 방법도 제각각이지요. 또한 육안으로 보았을 때 종이가 훼손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현미경을 이용해 매우 치밀하고 섬세하게 기록물을 분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은 고도의 집중력과 관찰력, 섬세함이 요구되지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해 숨을 불어넣는 것처럼 역사 속 기록물의 상처를 치료해 역사를 되살리는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 많은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 싶은 친구라면, 역사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며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의 꿈을 키워나가길 바랍니다.